

특별 기고

김 종 식



누구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꿈을 마침내 현실로 바꾸어 버리는 사람이 있다. 누구나 '벽'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에서 끝내 '갈'을 찾아내는 사람이 있다.

신분차별 사회의 인습에 굴하지 않고 무릎을 꿇려 당나라 사주로 건너가 무령군 소장이 되었다.

亞문화전당서 海神을 만나고 싶다

그는 지난 2004년 KBS에서 방영된 드라마 '해신'으로 세계인의 안방으로 찾아 들었다. 한류 미개척적인 인도에 한국 방송 프로그램 사상 첫 방방국을 내디뎠을 뿐만 아니라, 사극이라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중국, 대만, 일본, 홍콩, 필리핀, 베트남, 이란, 터키 등 세계의 여러 나라에 수출되어 인기리에 방영됐다.

가게 귀국하는 결단을 내린다. 왕에게 1만 군사를 청하여 해상교통의 요충지 청해에 진을 설치하고 전략적 거점을 마련한 그는 청해진 대사가 되어 수병을 훈련시키고 해적을 완전 소탕하기에 이른다.

기여하는 바는 지대하다. 장보고의 무력으로 우리나라에 본격적인 불교와 선진문물, 차나무와 도자기 등 새로운 문화가 들어왔다. 특히, 장보고 해상세력의 무역활동을 통해 강진을 비롯한 서남해안 일대 가마들은 중국 월주지방의 청자기술을 받아들여 신라청자를 생산하게 된다.

이에 엄청난 수입대체효과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장보고 해상세력의 핵심적인 수출전략상품으로 부상하게 되며, 강진 도공의 후손들은 고려시대에 이르러 마침내 세계 최고의 고려청자를 만들어 낸 주역으로 떠오르게 된다.

가는 길이었으니 장보고는 1200년 전에 이미 '세계인'이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장보고라는 인물의 발상의 전환에 있었다. 그는 바다를 육지의 '갈'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시작'이라고 생각했다. 중국 양주에서 일본의 하카타까지 섬과 대륙으로 둘러싸인 동북아 바다를 한·중·일 삼국을 잇는 최상의 활동공간으로 인식하였으며, 동북아를 각각의 나라로 따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권역으로 인식, 조국적 혁신 클러스터를 가능하게 한 것이다.

영상, 뮤지컬, 연극, 전시, 게임, 캐릭터 등 다양한 외연 확대로 무한한 부가가치를 능히 만들어 낼 만한 경쟁력 있고, 의미 있는 콘텐츠로써 장보고는 세계가 공유할 문화가치를 창출, 아시아 문화 허브 아시아 문화전당의 주역이 될 것이 분명하다. 문화전당의 시대라는 21세기, 각 나라마다 자국의 전통과 문화를 세계에 알리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이 시기에 장보고는 9세기 그려왔던 첫머리 국가 이미지를 드높이는 유능한 외교관의 역할을 훌륭히 해냄으로써 세계 문화의 신선한 트렌드를 이끌어 나갈 것이다.

시 설

난립·혼탁한 지역신문 시장 정화 나설 때다

최근 경남도 양산시와 경기도 성남시가 지역 언론사 난립에 따른 폐해를 줄이기 위해 지방 언론사를 대상으로 한 행정광고 배정기준을 마련해 관심을 끌고 있다. 양산시는 지난 2일부터 ABC 협회가 공개한 발행부수 1만부 이상 언론사에 한해 출입을 인정하고, 그 이하 언론사에 대해서는 고시·공고료 등에 산지료를 중단하고 있다.

실제로 지역에서 발행되는 신문은 언론 종사자조차 정확한 숫자를 알 수 없을 만큼 전국에서 가장 많다. 광주시와 전남도 등 광역단체는 제쳐 놓고라도 일선 시·군의 출입기자 수가 20~40여 명에 이를 정도다.

성남시도 ABC협회 공개 발행 부수를 기준으로 5천부 미만의 지방 언론사에 대해서는 행정광고를 주지 않기로 했다. 5천부 이상의 지방신문에 대해서도 발행부수에 따라 1~3등급으로 나눠 광고 및 행정광고를 차등 배정기로 했다. 우리가 양산시와 성남시의 이 같은 조치를 주목하는 것은 광주·전남의 지역언론이 시장의 난립과 혼탁으로 인해 그 존립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언론이 살아야 지역의 미래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를 비롯한 공공기관부터라도 공정하고 합리적인 광고 배정 등을 통해 건전한 지역언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한다. 정부보다 지역균형발전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보다 강력하고 효력 있는 지방언론 보호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청소년 범죄 가정·학교·사회가 바로 잡아야

방학 중 청소년 범죄가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이들 청소년은 부모의 무관심 속에 가출한 뒤 음돈과 유희비 마련 등을 위해 PC방 등을 전전하며 각종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 특히 이들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흉포화되어 간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방학 중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학교나 학부모의 보호나 제함을 적게 받는다는 데 있다. 여기에 다 PC방 등 유해업소가 널려 있고, 청소년들이 가출시 이를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것도 한몫을 하는 셈이다.

경찰에 검거된 일부 청소년은 가정 환경이 어렵거나 부모의 간섭을 피하기 위해 가출했다고 한다. 자포자기 상태에서 달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교가 방학에 들어간 이후 청소년 범죄가 크게 늘어난 것이다. 동부경찰이 지난 24일 하루동안 절도혐의로 붙잡은 청소년만 모두 10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들 청소년 가운데 일부는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가출한 뒤 오토바이와 금품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심지어 지난 11일 서부경찰에 검거된 배모(18)군 등 2명은 훔친 승용차를 타고 다니면서 도구를 이용해 상업적으로 차량털이를 하는 등 갈수록 범죄수법이 대담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지금처럼 방치하면서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기를 바랄 수는 없다. 가정과 학교, 사회 모두가 관심을 갖고 대화의 장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정부 역시 청소년 가출, 비행, 범죄 문제를 주요 정책적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청소년들을 보호, 치유하는 종합적 시스템을 서둘러 갖추지 않으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은평칼럼

강대석



매년 새해가 되면 청와대를 비롯한 일부 기관 단체에서 한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를 발표한다. 발표된 내용을 보면 조국의 특성이나 의지를 엿 볼 수 있고, 때론 기발한 표현도 있어 신선한 감동을 받기도 한다.

그러면 우리 전남은 무엇일까? 우리 도는 지금까지 사자성어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본 적은 없다. 그것은 굳이 사자성어를 만들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일 것이다.

기 고

이재언



보자마자 반가운 것들이 많이 있다. 보자마자 반가운 사람, 영화, 책, 음식 등 무엇인가가 있다. 보리 고개 시절, 산업화로 인하여 급변하는 현대문명 속에서 60~70년대의 생활상을 보여주는 전통과 물건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잊혀져 가고 있다.

서 먼소재자인 비자리로 걸어서 다녀야 했다. 문제는 맹선리 사람들이 이 고개를 넘어서 진산리에 버는 농사를 짓는 것이었다. 보통 7~10마지기 정도의 농사를 짓는데 이 고개를 넘어다니면서 고생을 바가지로 했다. 봄에는 단채로 이 고개를 넘어가서 모내기를 하고 아이들도 단채로 가서 모밭을 얻어 먹었다. 문제는 가을이다. 나라으로 만든 벼를 일일이 지게에 지고, 머리에 이고 이 고개 정상에 올려놓고 다시 맹선리 마을로 내리는 일이었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

꿈하게 끝낸다'는 뜻으로 좋은 기회가 주어졌을 때 미루지 않고 해낸다는 의미인데 임기 후반기를 맞아 국정현안들을 맡김하게 마무리 짓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인다. 대기업들의 예를 보면 더욱 다양하다. 삼성은 '불강불급'(不狂不戢)이다. '미치지 않고서는(목표)미칠 수 없다'는 뜻으로 그들의 일에 대한 열정을 엿 볼 수 있다. 현대자동차는 '주마가편'(走馬加鞭)이다.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한다'는 뜻으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더욱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고 한다.

농수축산은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며, 둘째는 기업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며, 셋째는 4대 국제행사를 성실히 준비하며, 10월에 개최되는 F1경주대회,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국제 농업박람회, 2013 순천정원박람회 등을 차질 없이 개최하는 것 등이다. 따라서 여기에 걸 맞는 사자성어를 고사에서 찾거나 만들면 될 것이다. 어항 말이 나왔으니 굳이 찾는다면 필자의 짧은 식견으로는 '마불정제'(馬不停蹄)가 어떨까란 생각이 든다. 달리는 말은 발굽을 멈추지 않는다는 뜻으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는 전남도정이 그대로 투영되기 때문이다.

'빤스 고개'의 추억과 지게 이야기

표적인 물건 운반 기구다. 6·25가 터졌을 때도 미군들은 한국 사람들의 지게 행렬을 보고 신기하게 생각했다. 피난을 갈 때 한국인들은 지게에 쌀립살이를 지고 갔다. 유엔군들은 차로 가지 못하는 고지나 골짜기에 군수품과 식량 등을 나르기 위해 지게를 이용했다. 어릴 때 농촌에서 살아본 분이라면 지게에서 소 풀을 나르고, 겨울에는 빨감을 해 나르고 농사일에 힘을 보탤 때. 이제는 이 나무로 된 지게가 사라진 지 오래다. 50대 이상의 나이가 드신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 공감하는 삶의 이야기가 있다. 전남 완도군에 있는 '항일의 섬' 소안도의 '빤스 고개와 지게 이야기'다. 소안도에는 맹선리와 진산리 고개를 넘어가는 '빤스 고개'가 있다. 지금은 도로 사정이 좋아졌지만 예전의 섬은 도로 사정이 엉망이었다. 지금은 소안도가 바닷가로 일주도로가 나서 포장도 잘 됐지만 옛날에는 진산리, 소진리, 부상리 사람들은 이 고개를 넘어

이 고개가 '빤스 고개'가 됐다. 필자도 이 추억의 '빤스 고개'를 넘어가려고 시도했지만 숲이 우거져서 알마를 못 가서 포기하고 말았다.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하면서 이 '빤스 고개'를 넘어다니며 농사를 지었는가? 너무 편리함에 있어 사는 우리 후손들에게 이 '빤스 고개'를 재현해서 진 지게라도 지고 올라가 보았으면 한다. 이 '빤스 고개' 지게 문화 체험을 통해 선조의 근면과 끈기를 경험하는 기회가 됐으면 한다. 이 고개를 복원하는 데는 돈도 들지 않을뿐더러 자연 훼손도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있는 길에 자갈을 깔고 고개 정상에는 정자를 만들어 쉬어가는 문화 체험을 했으면 한다. 항일 운동의 섬 소안도가 개개기 체험, 전복, 김, 납시 등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났으면 한다. 아날로그와 디지털 중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디지털은 편리하지만 아날로그는 삶이며, 생생하며 정이 정말 묻어난다. <작가>

無 等 鼓

'살아있는 자의 마음 속에 존재하는 죽음의 물리적 불가능성' 오늘날 최고의 현대미술작가로 평가받는 데미언 허스트가 1991년에 제작한 작품 '상어 박제'의 제목이다. 빤스아 사체를 포름알데히드 용액에 담가 둔 작품은 무려 1200만 달러에 팔려나갔다. 현대미술작품이 이처럼 고가에 판매되는 것은, 그동안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받던 현대미술 이전의 작품들이 활발히 거래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절작'이 미술관이나 개인 수집고에 들어가

은 1997년 경매에서는 550만 달러에 판매했지만 2006년 경매에서는 3100만 달러에 팔렸다. 세간의 수채화 '초록색 멜론이 있는 정물'은 1989년 소더비 경매에서 250만 파운드에 거래됐지만 2007년 경매에선 2560만 달러에 판매했다.

상어 박제



유종하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국립현대미술관에 맡겨졌다는 19세기 유화가 매되는 것은, 그동안 최고 수준의 작품으로 평가받던 현대미술 이전의 작품들이 활발히 거래됐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절작'이 미술관이나 개인 수집고에 들어가 버려 사실상 거래가 끊어진 것이다. 따라서 현대미술 이전의 작품 중 제법 이름이 있거나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고 평가받는 작품들은 일단 시장에 나오기만 하면 '작품을 소유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여겨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모달리아니의 1918년작 '수위의 아들' /홍행기 정경부 차장 redplane@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증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평상'을 수여 합니다. 은평칼럼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평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실는 코너입니다.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민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유치원 통학차량 안전규정 감독 철저해야

얼마 전 아이가 다니는 유치원 현장 학습을 따라나선 적이 있다. 그런데 아이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문득 발 아래를 봤더니 내가 탄 좌석이 어른용 좌석 아닌가. 차는 어린이가 타는 유치원 차였는데 그 차의 좌석은 죄다 어른용 좌석이였다. 그 때문에 좌석에 앉은 아이의 발은 차 바닥에 닿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안전벨트도 사실상 있으나마나 했다. 운전기사에게 물었더니 그 차는 유치원 소유의 전용차라 아니라 개인적으로 운영하

는 영업용 차량이라며 유치원이 현재 임대해서 쓰는 중이라고 일러줬다. 아이를 처음 유치원에 보낼 때 유치원 차량에는 아이들의 보호를 위해 보호받판을 설치하도록 돼있고, 어린이 전용 안전벨트도 부착하도록 규정돼있다고 들었다. 어린이 통학차량의 안전규정이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의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하겠다. <▲윤용승·광주시 서구 벽진동>

Table with Kwangju Ilbo contact information, subscription rates, and advertising rates.